

“KIA 미래는 나” ... 아기호랑이 10명 탄생

‘2015 프로야구 신인 2차 드래프트’

순천 효천고 이민우 등 투수 6명·경기고 내야수 황대인 영입

‘호랑이 군단’의 새 얼굴이 공개됐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열린 ‘2015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회’에서 경기고 내야수 황대인을 우선 선택하는 등 총 10명의 ‘아기 호랑이’를 낙점했다. 가장 먼저 중장거리형 고교타자를 호명하며 ‘미래’를 선택한 KIA는 이후 마운드에 주력하면서 ‘발등의 급한 불’을 껐다. 1·2군 모두 부실한 마운드 탓에 고전을 면치 못하자, 우선지명을 받은 순

천 효천고 출신의 이민우(경성대) 포함 대졸 투수 6명을 2015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수집했다. 177cm, 90kg의 다부진 체격을 지닌 황대인은 뛰어난 타격 능력과 파워를 겸비한 중장거리형 타자로 고교 타자 최대어로 꼽힌 선수다. 투수로도 140km 중반대의 공을 던질 정도로 강한 어깨를 갖추고 있다. 2라운드에서 건국대 투수 문경찬을 선택한 KIA는 7라운드까지 투수들을 호명했다.

특히 6라운드까지 대졸투수로 채우면서 ‘마운드 고민’을 보여줬다. 2라운드에서 뽑힌 문경찬은 186cm, 80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녔으며 경기운영 능력과 컨트롤이 좋은 투수로 평가받는다. 구속은 140km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으며 완투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즉시 전력감으로 기대하는 자원이자. 3라운드에서 지명된 우안 이종석(세한대)은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볼 끝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라운드에서 뽑은 좌완 이준영(중앙대)은 제구력과 경기 운영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KIA는 이외에 5라운드 황인준(한양대·투수), 6라운드 김명찬(연세대·투수), 7라운드 박정수

(야탑고·투수)의 이름을 부르며 마운드를 보강했다. 또 8라운드 박정우(배명고·포수), 9라운드 이정현(홍익대·외야수), 10라운드 김호령(동국대·외야수) 등 총 10명을 지명했다. 황인준은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미래 육성자원이고, 좌완 김명찬은 좋은 신체조건(187cm·84kg)이 눈에 띈다. 박정수는 팀의 사이드암 볼펜 자원으로 육성할 재목이다. 강한 어깨가 매력적인 박정우(우투좌타) 공격형 포수로 눈길을 끌었다. 빠른 발을 가진 이정현은 안정된 수비와 송구 능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김호령도 폭발적인 스피드와 함께 안정적인 외야수비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경기고 내야수 황대인

리틀 전용 야구장 7개의 ‘기적’



24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사우스 윌리엄스포츠의 리틀야구 월드컵 미 시카고 대표팀과 결승 6회, 최해찬(등번호 '21')이 투런 홈런을 터뜨린 후 동료 선수들과 번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12세 이하 서울시 대표로 꾸려진 이번 대표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예선에서 6전 전승을 거두고 월드컵 무대에 올라 이날 8-4 승리로 1984·1985년 연속 우승 이후 29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에 등극했다. /연합뉴스

한국 리틀야구, 월드컵 결승 美 8-4 꺾고 29년만에 세계 제패

한국 리틀야구가 29년 만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은 25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츠 라마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 리틀야구 월드컵 결승에서 미국 시카고 대표팀을 8-4로 꺾었다. 이로써 한국은 1984·1985년 연속 우승 이후 무려 29년 만에 세계 리틀야구 정상에 등극했다. 12세 이하 서울시 대표로 꾸려진 이번 대표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예선에서 6전 전승을 거두고

월드컵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서도 체코와 개막전부터 4전 전승으로 국제그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결승에 오른 한국은 미국그룹 1위인 시카고 대표팀마저 꺾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전국에 리틀야구장이 7개뿐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뤄낸 기적과 같은 쾌거였다. 황재영과 최해찬이 이어 던진 한국은 두 선수가 공격에서도 각각 2타점, 1타점을 올리며 승리를 쌓아냈다. 한국은 1회초 신동완의 중월 2루타에 이어 황재

영의 좌월 2루타로 가볍게 선취점을 뽑았다. 3회초 1사 2, 3루에서는 황재영의 3루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 최해찬이 홈을 밟아 점수를 추가했다. 한국은 2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은 황재영이 3회말 선두타자에게 첫 안타를 내준 뒤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구원 등판한 최해찬은 안타와 볼넷으로 1사 만루를 허용했지만 1점만을 내주고 위기를 넘겼다. 한국은 실점 후 곧바로 득점했다. 4회초 1사 2루에서 대타 권규현이 좌전 적시타로 2루 주자 박지호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한국은 5회초 4번 타자 신동완이 중월 솔로 홈런

을 쏴아 올려 점수 차를 3점으로 벌렸다. 한국은 6회초 대거 4점을 뽑으며 승부를 갈랐다. 1사 1, 2루에서 김재민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는데 이어 전진우가 2타점 우전 적시타를 쳐냈다. 전진우가 2루까지 내달리다 아웃됐지만 최해찬이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쏴아 올렸다. 최해찬이 홈런을 치자 선수들은 더그아웃에서 나와 다 같이 ‘번개 세리머니’를 펼치며 기뻐했다. 한국은 6회말 피인타 3개와 송구 실책, 폭투로 3실점했지만 이어진 2사 1, 2루에서 최해찬이 마지막 타자를 2루수 땅볼로 요리하고 18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연합뉴스

2년만의 삼페인 맛

유소연, LPGA 캐나다 오픈 우승



최나연 2위·박인비 3위... 한국 싹쓸이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시즌 하반기 한국 선수들의 상승세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유소연은 25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런던 헌트 앤드 컨트리클럽(파72, 6656야드)에서 열린 캐나다 피시픽 여자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묶어 3타를 줄였다. 나흘 연속 단독 선두를 달린 유소연은 23언더파 265타를 쳐 2위 최나연(27·SK텔레콤)을 2타차로 따돌리고 2012년 8월 제이피마 톨리도 클래식 이후 2년 만에 우승컵과 함께 상금 33만7500달러(약 3억 4000만원)를 받았다. 2011년 US여자오픈까지 포함해 개인 통산 LPGA 투어 세 번째 우승이다. 현재 세계랭킹 9위인 유소연은 이번 우승으로 5위까지 도약할 전망이다. 유소연의 우승 스코어 23언더파는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지난 6월 매 뉴리프 파이널 클래식에서 작성한 시즌 최다 언더파 스코어와 타이 기록이다. 세계랭킹 2위 박인비도 이번 대회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 3위(18언더파 270타)에 올라 한국 선수들이 1~3위를 차지했다. 시즌 상반기에 박인비 이외에는 우승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던 한국 여자 선수들은 8월 들면서 이미 림(24·우리투자증권)이 마이어 클래식, 박인비가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데 이어 유소연까지 정상에 오르며 3개 대회 연속 우승트로피를 휩쓸었다. 유소연은 “16번홀에서 버디를 잡은 것이 중요했다”며 “이 홀에서 버디를 잡은 뒤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3년 연속 우승을 노렸던 뉴질랜드 교포 리더이고(17)는 4타를 잃고 공동 55위(1언더파 287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광주 도착

25일 오후 광주에 도착한 2014 인천 아시안경기대회(9월19일~10월4일) 성화를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선수가 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광주시청으로 봉송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